

강신주 <진정한 삶을 복원하기 위해 몽친 시인과 철학자들>

◆ 1주: 기쁨의 연대-네그리와 박노해

■ 노동 해방에서 화염의 세계로

지금은 ‘개인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주의 기운으로 태어나 우주만큼 소중한 한 생명,
한 인간이 먼저, 내가 먼저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내 한 몸 바치는 것을 미덕으로 교육받아온
‘개인 없는 우리’에서
자유롭고 독립하여 주체적인 개인들의 연대-
‘개인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박노해, 「인다라의 구슬」 『사람만이 희망이다』, 해냄, 1997년

■ 다중의 정치와 사랑의 세계

① 이제 우리는 전지구적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노동형태들이 오늘날 공통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우리의 앞선 논의의 최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농업노동, 산업노동, 그리고 비물질노동은, 빈자들의 생산적인 사회적 활동과 더불어, 점차 공통적인 특질들을 띠어가고 있다. 이 ‘공통되기(becomming common)’는 다양한 노동형태들의 평등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자유로운 교류와 소통의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공동으로 생산하는 것 (producing in common)은- 그 자체가 다중 창조의 조건인- 공통된 것의 생산(the creation of the common)의 가능성을 제공해준다.-『다중(Multitude)』

② 전지구적 위계의 모든 층위에서 보이고 있는, 권력 부패의 모든 징후와 민주적 대의의 모든 위기는 민주주의적 힘에의 의지(democratic will to power)에 직면하고 있다. 이 분노와 사랑의 세계는 다중의 구성적 힘이 놓여 있는 현실적 토대이다. 다중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과학’, 즉 이 새로운 상황과 대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을 필요로 한다. 이 새로운 과학의 제1의 의제는 민주주의를 위해 주권을 파괴하는 것이다. 주권은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띤 불가피하게 일자의 지배로서 제시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침잠한다. 민주주의의 기획은 오늘날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모든 현존하는 주권형태들에 도전한다.-『다중』

③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을 하나의 정치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랑의 개념은 바로 다중의 구성적 힘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사랑의 근대적 개념은 부르주아적 커플에, 그리고 핵가족의 밀실공포증적 울타리에 거의 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사랑은 엄격하게 사적인 일로 여겨져 왔다.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더 넓고 더 자유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는 전근대적 전통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공적이고 정치적인 사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독교와 유대교는 공히 사랑을 다중을 구성하는 정치

적 행위로 파악한다. 사랑은 바로, 우리의 확장된 만남들과 부단한 협동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을 의미한다.-『다중』

◆ 2주: 언어의 뼈-비트겐슈타인과 기형도

■ 어느 시인의 고독한 죽음

김교수님이 새로운 학설을 발표했다
소리에도 뼈가 있다는 것이다
모두 그 말을 웃어넘겼다, 몇몇 학자들은
잠시 즐거운 시간을 제공한 김교수의 유머에 감사했다
학장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일학기 강의를 개설했다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장난삼아 신청했다
한 학기 내내 그는
모든 수업 시간마다 침묵하는
무서운 고집을 보여주었다
참지 못한 학생들이, 소리의 뼈란 무엇일까
각자 일가견을 피력했다
이군은 그것이 침묵일 거라고 말했다
박군은 그것을 숨은 의미라 보았다
또 누군가는 그것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모든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에 접근하기 위하여 채택된
방법론적 비유라는 것이었다
그의 견해는 너무 난해하여 곧 묵살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다음 학기부터 우리들의 귀는
모든 소리들을 훨씬 더 잘 듣게 되었다.

-기형도, 「소리의 뼈」『기형도 전집』, 문학과지성사, 1999년

■ 소리의 뼈란 무엇일까?

① “나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안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그리고 “나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철학적 탐구(Philosophical

Investigations)』

② 어떤 낱말이 어떻게 기능하느냐는 추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낱말의 적용을 주시하고, 그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러나 난점은 이러한 배움을 가로막는 선입견을 제거하는 일이다. 그것은 어리석은 선입견이 아니다.-『철학적 탐구』

③내가 규칙을 따를 때, 나는 선택하지 않는다. 나는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른다.-『철학적 탐구』

◆ 3주: 사유의 의무-아렌트와 김남주

■ 근면은 미덕일 수 있을까?

관료에게는 주인이 따로 없다!
봉급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개에게 개밥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듯

일제 말기에 그는 면서기로 채용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근면했기 때문이다

미군정 시기에 그는 군주사로 승진했다
남달리 매사에 정직했기 때문이다

자유당 시절에 그는 도청과정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성실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시절에 그는 서기관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공정했기 때문이다

민정당 시절에 그는 청백리상을 받았다
반평생을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했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아프리카가 어딘가에서 식인종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그는 관리생활을 계속할 것이다

국가에는 충성을 국민에게는 봉사를 일념으로 삼아
근면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고 공정하게!

-김남주, 「어떤 관료」, 『사랑의 무기』, 창작과비평사, 1989년

■ 사유는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의무이다!

① 아이히만은 이아고도 맥베스도 아니었고, 또한 리차드 3세처럼 “악인임을 입증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그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일이었다.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각별히 근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는 어떤 동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상관을 죽여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살인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문제를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다. (...) 그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로 하여금 그 시대의 엄청난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결코 어리석음과 동일한 것이 아닌) 철저한 무사유(sheer thoughtlessness)였다. (...) 이처럼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과 이러한 무사유가 인간 속에 아마도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대과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었다.-『예루살렘의 아이히만(Eichmann in Jerusalem)』

② 아르헨티나나 예루살렘에서 회고록을 쓸 때나 검찰에게 또는 법정에서 말할 때 아이히만의 말은 언제나 동일했고,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었다. 그의 말을 오랫동안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말할 수 없음은 그의 생각할 수 없음, 즉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음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와는 어떤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과 타자의 현존을 막는, 따라서 현실 자체를 막는 튼튼한 벽으로 에워싸여 있었기 때문이다.-『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4주: 삶의 우발성-알튀세르와 강은교

■ 다정히 몸을 비빌 때 물은 어떤 소리를 내는가?

그는 물소리는 물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렇군, 물소리는 물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 물이 바위를 넘어가는 소리, 물이 얇은 달의 허리를 굽는

소리, 물이 소나무의 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소리…… 물이 햇살을 부수는 소리, 산산히 부수어 반짝이는 소리, 물이 달을 앗히다가 그 빛에 놀라 뒤로 자빠지는 소리, 물이 길을 찾아가는 소리……

물끼리 다정히 몸을 부비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가만히 눈을 감고 귀에 손을 대고 있으면 들린다. 물끼리 몸을 부비는 소리가. 물끼리 가슴을 흔들며 부딪는 소리가. 자기가 젖은 줄도 모르는 물고기들의 뛰는 소리가.

심장에서 심장으로 길을 이루어 흐르는 소리가 물길의 소리가

-강은교, 「물끼리 부딪는 혹은 부비는」, 『시간은 주머니에 은빛 별 하나 넣고 다녔다』, 문학사상사, 2002년

■ 우발성의 철학 혹은 마주침과 지속의 논리

① 비가 온다.

그러니 우선 이 책이 그저 비에 관한 책이 되기를.

말브랑슈는 “왜 바다에, 큰길에, 해변의 모래사장에 비가 오는지”를 자문했었다. 다른 곳에서는 농토를 적셔주는 이 하늘의 물이, 바닷물에 대해서는 더해주는 것이 없으며 도로와 해변에서도 곧 사라져버리기에.-『마주침의 유물론이라는 은밀한 흐름(Le courant souterrain du matérialisme de la rencontre)』

② 에피쿠로스는 세계형성 이전에 무수한 원자가 허공 속에서 평행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 클리나멘(Clinamen)은 무한히 작은, “최대한 작은” 편의로서,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허공 중에서 한 원자로 하여금 수직으로 낙하하다가 “빗나가도록”, 그리고 한 점에서 평행 낙하를 극히 미세하게 교란함으로써 가까운 원자와 마주치도록, 그리고 이 마주침이 또 다른 마주침을 유발하도록 만든다. 그리하여 하나의 세계가, 즉 연쇄적으로 최초의 편의와 최초의 마주침을 유발하는 일군의 원자들의 집합이 탄생한다.-『마주침의 유물론이라는 은밀한 흐름』

◆ 5주: 너무나 인간적인 에로티즘-바타이유와 박정대

■ 시인이 서럽게 그리워하는 것

기억의 동편 기슭에서

그녀가 빨래를 널고 있네. 하얀 뺨스 한 장
기억의 빨랫줄에 걸려 함께 허공에서 펄럭이는 낡은 집 한 채
조심성없는 바람은 창문을 흔들고 가네. 그 옥탑방

사랑을 하기엔 다소 좁았어도 그 위로 펼쳐진 여름이
외상장부처럼 펄럭이던 눈부신 하늘이, 외려 맑아서
우리는 삶에,
아름다운 그녀에게 즐겁게 외상지며 살았었는데

내가 외상졌던 그녀의 입술
해변처럼 부드러웠던 그녀의 허리
걸어 들어갈수록 자꾸만 길을 잃던 그녀의 검은 숲 속
그녀의 숲 속에서 길을 잃던 밤이면
달빛은 활처럼 내 온몸으로 쏟아지고
그녀의 목소리는 리라 소리처럼 아름답게 들려 왔건만
내가 외상졌던 그 세월은 어느 시간의 뒷골목에
그녀를 한 잎의 여자로 감춰두고 있는지

옥타비오 빠스를 읽다가 문득 서러워지는 행간의 오후
조심성 없는 바람은 기억의 책갈피를 마구 펼쳐 놓는데
네 아무리 바람 불어간들 이제는 가 닿을 수 없는, 오 옥탑 위의
옥탑 위의 뺨스, 서럽게 펄럭이는
우리들 청춘의 아득한 깃발

그리하여 다시 서러운 건
물결처럼 밀려오는 서러움 같은 건
외상처럼 사랑을 구걸하던 청춘도 빛바래어
이제는 사람들 모두 돌아간 기억의 해변에서
이리저리 밀리는 물결 위의 희미한 빛으로만 떠돈다는 것
떠도는 빛으로만 남아 있다는 것

-박정대, 「그 깃발, 서럽게 펄럭이는」, 『아무르 기타』, 문학사상사, 2004년

■ 금기도 없다면 에로티즘도 없다!

① 에로티즘에는 유혹과 공포, 긍정과 부정의 엇갈림이 있으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인간의 에로티즘은 단순한 동물의 성행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거꾸로 금기의 대상은 금지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강력한 탐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금기는 대체로 대상의 성적 가치(혹은 에로틱한 가치)를 강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것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어떤 것으로서, 참을 수 없는, 덧없는, 그리고 의미가 없는 충동, 자유로운 성행위로서의 동물적 충동과는 대립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계이다.-『에로티즘의 역사(L'histoire d'érotisme)』

② 금지된 대상에 대한 선망이 없다면 에로티즘도 없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에로티즘에 의한 탈선도 없었다면, 또 그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다면 존경도 없었을 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존경은 '폭력의 우회로' 외에 다른 아니다. (...) 금기는 성 행위의 폭력을 바로 잡는 대신, 오히려 '인간적' 세계, 즉 동물성으로서는 모르는 규칙 위반의 세계를 확립한다. (...) 오늘날 결혼은 위반의 측면은 점점 희미해졌다. 이제 결혼은 성행위와 존경의 결합된 형태가 되었다. 아니 차라리 결혼은 존경의 의미 쪽에 기울고 있다. 그래도 '통과의례'로서의 '결혼의 순간'만큼은 희미하게나마, 원칙의 수준에서, 위반의 측면을 유지하고 있다.-『에로티즘의 역사』

◆ 6주: 소비사회의 유혹-벤야민과 유하

■ 욕망의 집어등!

눈앞의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오든 광명을!

-유하, 「오징어-여는 시」,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문학과지성사, 1991년

■ 벤야민의 미완의 기획, '아케이드 프로젝트'

① 마르크스는 경제와 문화 간의 인과적 연관성을 드러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표현의 연관이다. 문화가 어떻게 경제에서 성립하는가가 아니라 문화 속에서 경제가 어떻게 표

현되는가를 서술할 것. 다시 말해 경제 과정을 눈에 보이는 원-현상으로, 즉 아케이드에서 벌어지는 모든 삶(따라서 19세기에 벌어지는 모든 삶)의 현상이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원-현상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할 것이다.-『아케이드 프로젝트(Arcades Project)』

② “팔레-루아얄(Palais-Royal)의 장사가 창녀들이 없어짐으로써 정말 피해를 입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는 체면을 차리려는 대중들의 태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 게다가 지금은 지체 높은 여성들이 기꺼이 갤러리의 상점으로 쇼핑하러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상인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보상이 아닐 수 없다.” F. A. 베로(Béraud), 『파리의 매춘부(Les Filles publique de Paris)』, 파리/라이프치히, 1839년, 1권, 207-209페이지-『아케이드 프로젝트』

③ “역사적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파리의 상인들은 패션계를 일변시킨 두 가지 점을 발견한다. 상품의 진열과 남자 종업원이 그것이다. 진열된 상품으로 상점을 1층에서 다락방까지 장식했으며 상점 정면을 기함(旗艦)처럼 꾸미는 데 360미터의 천을 사용했다. 이어 남자 종업원의 채용. 이를 통해 여성에 의한 남성의 유혹-양시앵레짐기의 상점 주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것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더 교활한 남성에 의한 여성의 유혹으로 대체되었다. 두 가지 변화와 함께 경찰제 판매와 정가 판매제의 도입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H. 클루조(Clouzot)/R.-H. 발랑시(Valensi), 「인간희극의 파리(Le Paris de La Comédie humaine)」, 『발자크와 그의 납품업자들(Balzac et ses fournisseurs)』, 파리, 1926년, 31-32페이지.(「신유행품점」)-『아케이드 프로젝트』

◆ 7주: 망각의 지혜-니체와 황동규

■ 신분증에 다 담을 수 없는 꿈

그대 벽 저편에서 중얼댄 말
나는 알아들었다.
발 사이로 보이는 눈발
새벽 무렵이지만
날은 채 밝지 않았다.
시계는 조금씩 가고 있다
거울 앞에서
그대는 몇 마디 말을 발음해본다.
나는 내가 아니다 발음해본다.
꿈을 견딘다는 건 힘든 일이다.
꿈, 신분증에 채 안 들어가는

삶의 전부, 쌓아도 무너지고

쌓아도 무너지는 모래 위의 아침처럼 거기 있는 꿈.

- 황동규, 「꿈, 건디기 힘든」,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문학과지성사, 1994년

■ 행복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망각의 힘

① 망각이 없다면, 행복도, 명량함도, 희망도, 자부심도, 현재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저지 장치가 파손되거나 기능이 멈춘 인간은 소화불량 환자에 비교될 수 있다. (...) 이런 망각이 필요한 동물에게 망각이란 하나의 힘, 강건한 건강의 한 형식을 나타내지만, 이 동물은 이제 그 반대 능력, 즉 기억의 도움을 받아 어떤 경우, 말하자면 약속해야 하는 경우에 망각을 제거하는 기억을 기르게 된 것이다.-『도덕의 계보학(Zur Genealogie der Moral)』

② 세계의 가치는 우리의 해석 속에 있다는 점(-단순한 인간적 해석 이외에 다른 해석들도 어디선가 가능하다는 것-); 지금까지의 해석들은 우리가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생명, 즉 힘에의 의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점주의적 평가들이라는 점; 인간의 모든 향상은 편협한 해석들의 극복을 수반한다는 점; 힘의 강화나 증가는 새로운 관점들을 열어놓고, 새로운 지평들을 믿게 한다는 점. 이런 생각이 나의 저작들을 관통하고 있다.-『유고(Nachgelassene Fragmente): 1885년 가을-1887년 가을』

③ 짐 깨나 지는 정신은 이처럼 더없이 무거운 짐 모두를 마다하지 않고 짊어진다. 그러고는 마치 짐을 가득 지고 사막을 향해 서둘러 달리는 낙타처럼 그 자신의 사막으로 서둘러 달려간다. 그러나 외롭기 짝이 없는 저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낙타는 사자로 변하는 것이다. 사자가 된 낙타는 이제 자유를 쟁취하여 그 자신이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 정신이 더 이상 주인 또는 신이라고 부르기를 마다하는 그 거대한 용의 정체는 무엇인가?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 그것이 그 거대한 용의 이름이다. 그러나 사자의 정신은 이에 맞서 “나는 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 새로운 가치의 창조. 사자라도 아직은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의 쟁취, 적어도 그것을 사자의 힘이 해낸다. (...) 그러나 말해보라, 형제들이여. 사자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어린아이는 해낼 수 있는가? 왜 강탈을 일삼는 사자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하는가? 어린아이는 순진무구요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이자 거룩한 긍정이다. 그렇다 형제들이여, 창조의 놀이를 위해서는 거룩한 긍정이 필요하다. 정신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원하며, 세계를 상실한 자는 자신의 세계를 획득하게 된다.-『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Also sprach Zarathustra)』

◆ 8주: 무한으로서의 타자-레비나스와 원재훈

■ 은행나무 아래서 작아지는 시인의 마음

은행나무 아래서 우산을 쓰고
그대를 기다린다
똑똑 떨어지는 빗방울들
저것 좀 봐. 꼭 시간이 떨어지는 것 같아
기다린다 저 빗방울이 흐르고 흘러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
저 우주의 끝까지 흘러가
다시 은행나무 아래의 빗방울로 돌아올 때까지
그 풍경에 나도 한 방울의 물방울이 될 때까지

은행나무 아래서 우산을 쓰고
그대를 기다리다보면
내 삶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대
빗방울처럼 똑똑 떨어져 내 어깨에 기대는 따뜻한 습기
내 가슴을 적시는 그대

은행나무 아래서 우산을 쓰고
자꾸자꾸 작아지는 은행나무잎을 따라
나도 작아져 저 나뭇가지 끝 매달린 한 장의 나뭇잎이 된다
거기에서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넌 누굴 기다리니 넌 누굴 기다리니
나뭇잎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이건 빗방울들의 소리인줄 몰라하면서
빗방울보다 아니 그 속의 더 작은 물방울보다 작아지는
내가, 내 삶에 그대가 오는 이렇게 아름다운 한 순간을 기다려온 것인 줄 몰라
한다

-원재훈, 「은행나무 아래서 우산을 쓰고」, 『그리운 102』, 문학과지성사, 1996

■ 유아론을 넘어 타자에게로

① 전체(Totalité)와 무한(Infini)이란 두 낱말을 놓음으로 전체성을 비판하는 것은 철학사와 관련이 있다. 철학사란 보편 종합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전체로 묶어내서, 그 전체성 안에서 의식이 세상을 휘어잡고 의식 밖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의식이 절대사고(pensée absolue)가 된다. 이런 전체화에 저항하는 것을 철학사에서 보기 어렵다. (...) 관계 체험은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고 궁극의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것이라고 본다. 종합이 아니라 사람끼리 서로 마주하는 가운데 있으며 사립 가운데 있다. 그게 윤리이다. 그러나 윤리라는 것이, 전체성이나 전체성의 위협에 대해 이리저리 추상화된 생각을 한 후에 뒤따라오는 그런 것은 아니다. 윤리는 그보다 먼저이고, 그리고 독립된 차원인 것이다. 제일철학은 윤리이다.-『윤리와 무한(Ethique et Infini)』

② 미래와의 관계, 즉 현재 속에서의 미래의 현존은 타자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상황에서 비로소 실현되는 것처럼 보인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상황은 진정한 시간의 실현이다. 미래로 향한 현재의 침식은 홀로 있는 주체의 일이 아니라 상호주관적인 관계이다.-『시간과 타자(Le Temps et L'Autre)』

◆ 9주: 미시정치학-푸코와 김수영

■ 4.19혁명의 뒤편에서 고뇌하는 두 시인

우리들의 적은 늪늪하지 않다
 우리들의 적은 카크 다글라스나 라차드 위드마크 모양으로 사나웁지도 않다
 그들은 조금도 사나운 악한이 아니다
 그들은 선량하기까지도 하다
 그들은 민주주의자를 가장하고
 자기들이 양민이라고도 하고
 자기들이 선량이라고도 하고
 자기들이 회사원이라고도 하고
 전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요리집엘 들어가고
 술을 마시고 웃고 잡담하고
 동정하고 진격한 얼굴을 하고

바쁘다고 서두르면서 일도 하고
원고도 쓰고 치부도 하고
시골에도 있고 해변가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산보도 하고
영화관에도 가고
애교도 있다
그들은 말하자면 우리들의 곁에 있다

우리들의 전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들의 싸움을 이다지도 어려운 것으로 만든다
우리들의 전선은 당케르크도 놀만디도 연희고지도 아니다
우리들의 전선은 지도책 속에는 없다
그것은 우리들의 집안 안인 경우도 있고
우리들의 직장인 경우도 있고
우리들의 동리인 경우도 있지만.....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들의 싸움의 모습은 초토작전이나
<건 힐의 혈투> 모양으로 활발하지 않고 보기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나 싸우고 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거리를 걸을 때도 환담을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토목공사를 할 때도
여행을 할 때도 울 때도 웃을 때도
팟나물을 먹을 때도
시장에 가서 비린 생선 냄새를 맡을 때도
배가 부를 때도 목이 마를 때도
연애를 할 때도 졸음이 올 때도 꿈 속에서도
깨어나서도 또 깨어나서도 또 깨어나서도...
수업을 할 때도 퇴근시에도
사이렌 소리에 시계를 맞출 때도 구두를 닦을 때도...
우리들의 싸움은 쉬지 않는다

우리들의 싸움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다
민주주의의 싸움이니까 싸우는 방법은 민주주의식으로 싸워야 한다
하늘에 그림자가 없듯이 민주주의의 싸움에도 그림자가 없다

하 …… 그림자가 없다

하 …… 그렇다 ……

하 …… 그렇지 ……

아암 그렇구말구…… 그렇지 그래……

응응…… 응 …… 뭐?

아 그래…… 그래 그래.

-김수영, 「하 …… 그림자가 없다」, 『김수영전집』(1권), 민음사, 2003년

■ 구성된 주체에서 구성하는 주체로

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즉 감옥은 범죄자들을 위한 일종의 쓰레기 폐기장이라고 말이다. 이 쓰레기 폐기장의 단점들이 사용되는 동안 분명해진다면, 이곳은 개선되어 개인들을 변모시키는 수단으로 만들어져야만 한다고 말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 감옥은 학교, 병영, 혹은 병원과 비교될 만한, 혹은 이런 것들보다 더 완벽하게 개별 주체들에게 엄격하게 작용하는 도구로서 의도된 것이다.-『권력/지식: 1972-1977년에 이루어진 인터뷰와 저술들에 대한 선집(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② 우리는 주체 자체를 제거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역사적 틀 안에서 주체를 분석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계보학(genealogy)이라고 부른 것이다. 계보학은 주체-사건들의 장과의 관계에서 초월론적이거나 비어있는 형식으로 역사의 경로를 움직이는 주체-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지식, 담론들, 대상들의 영역 등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역사학의 한 형식이다.-『권력/지식: 1972-1977년에 이루어진 인터뷰와 저술들에 대한 선집』

◆ 10주: 대화의 재발견-가라타니 고진과 도중환

■ '접시꽃'같았던 사랑으로부터 '가구'같은 사랑으로

아내와 나는 가구처럼 자기 자리에

놓여있다 장롱이 그렇듯이

오래 묵은 습관을 담은 채

각자 어두워 질 때까지 앉아 일을 하곤 한다

어찌다 내가 아내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내의 몸에서는 뻘이격하는 소리가 난다
 나는 아내의 몸 속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 잊어버리고
 돌아 나온다 그러면 아내는 다시
 아래위가 꼭 맞는 서랍이 되어 닫힌다
 아내가 내 몸의 여닫이문을
 먼저 열어보는 일은 없다
 나는 늘 머쓱해진 채 아내를 건너다보다
 돌아앉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본래 가구들끼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저 아내는 방에 놓여있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 그림자와 함께
 욱중하게 어두워지고 있을 뿐이다

-도중환, 「가구」, 『2004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시』, 작가, 2003년

■ 사랑 혹은 타자로의 위험한 도약

① ‘가르치고-배우는’ 비대칭적 관계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상태이다. 이런 관계는 결코 비규범적인(abnormal) 것이 아니다. 규범적인(normal) 경우, 즉 동일한 규칙을 갖는 대화 쪽이 오히려 예외적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런 대화가 자신과 동일한 타자와의 대화, 다시 말해 자기대화(모노롤로그)를 규범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자기대화 또는 자신과 동일한 규칙을 공유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대화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화는 언어게임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타자 역시 언어게임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런 타자와의 관계는 비대칭적이며, ‘가르치는’ 입장에 선다는 것은, 바꿔 말해 타자 또는 타자의 타자성을 전제하는 일이다.-『탐구(探究) I』

② 철학이든 언어학이든 경제학이든 이 ‘어둠 속의 도약(크립키)’, 또는 ‘목숨을 건 도약(마르크스)’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규칙은 사후에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 도약은 매번 맹목적이며 거기에 바로 ‘신비’가 존재한다. 우리가 사회적·실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꿔 말해 그런 근거가 없는 위태로움과 관련된다. 그리고 우리가 타자라고 부르는 것은 커뮤니케이션·교환에서 나타나는 위태로움을 노출시키는 타자여야만 한다.-『탐구 I』